

【 해외금융뉴스: 일본 】

상반기 주요 5개 손보사, 당기순이익 큰 폭 감소

□ 일본 상위 6개 손해보험회사들이 11월 19일 일제히 발표한 2008년도 중간결산 실적에 따르면, 일본고아손해보험(日本興亜損害保険)을 제외한 5개사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
- 유가증권 평가손실 등 손해보험회사들의 금융위기 관련 손실액이 약 1,900억 엔에 달하는 등, 도쿄해상(東京海上)을 비롯한 상위 5개사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- 전년동기대비 이익 감소폭은 도쿄해상이 75%(당기순이익 180억 엔)로 가장 컸으며, 미츠이스미토모해상(三井住友海上)이 59%(당기순이익 123억 엔)로 두 번째를 기록함.
- 특히, 수입보험료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자동차 보험은 올해 4월부터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험료가 크게 인하된 영향으로 인해 상위 6개 보험사 모두 수익이 감소함.
- 이에 따라 손해보험회사들이 2008년도 실적 전망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을 만큼 2002년도 이후 6년 만에 적자 전환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.

□ 이번 실적부진에서 상당부분은 파산한 미국 리먼브라더스의 사채와 해외주식, 증권화 상품 등 각사가 보유한 해외자산에 고액 손실이 발생하면서 생김.

- 미국 금융위기 관련 손실은 미츠이스미토모해상이 900억 엔, 도쿄해상이 724억 엔에 달해 전체적인 실적악화의 주요인이 되고 있음.
- 업계에서는 분산 투자 차원에서 적극적인 해외사업을 추진해 온 손해보험회사들이 이번 금융 위기로 인해 적잖은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, 침체된 자국 내 보험시장보다는 향후에도 신중한 운용을 통한 해외 시장 개척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.

(마이니치신문 11/19,
산케이신문 11/19)